

남원, 축제 바가지요금 신속 대응

춘향제 농특산물·소상공인 판매 부스 126개 직영 임대 적발 시 즉시 퇴거, 행정처분·형사 고발 등 엄정 대처

남원시가 불철 축제가 본격화되면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바가지요금 원천 봉쇄에 나섰다. 시는 한 번이라도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면 남원 전체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매년 되풀이되는 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4월 15일 배재봉 절쭈레, 5월 10일 제94회 춘향제 등 한 달 남짓 동안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함에 따라 축제부담요금합동대응반을 운영하여

불법영업 및 바가지 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진행된 불꽃 음악회에서 뜨내기 상인이 판매 사유지 내에 입점해 품바공연과 음식부스를 불법 영업하고 있어 4월 2일 불법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무신고 영업에 대해 4월 3일 남원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 및 불법영업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춘향제에서 논란을 빚은 바가지요금 또한 뜨내기 업체로 이들은 축제기간 체류비와 재료 보관

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바가지요금을 받아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바 있어, 올 춘향제에는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소상공인 판매 부스 126개를 직영으로 임대하였으며, 입점권 전매를 금지하고 모든 메뉴는 가격 중량을 표시한 정찰제로 1만원 이하로 판매, 바가지 요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즉시 퇴거 조치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춘향제 먹거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남원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마케팅, 홍보로 특색있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는 데에 공을 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3월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남원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에서 부담요금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2일에는 남원시와 한국의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 및 남원추어ורי업협회는 친절·위생서비스 향상 및 가격안정 협약을 체결, 춘향제 기간 추어탕 가격을 1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춘향제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올해 제94회 춘향제에는 뜨내기 업체 입점을 차단하고 지역 소상공인 입점을 유도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100만 관광객 유치 및 바가지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94회 춘향제를 앞두고 남원에서 부담요금 근절 결의대회가 열렸다.

임실군, 초등학생 대상 성수산 왕의숲 탐험대 뜬다

숲 탐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고려와 조선 두 왕조의 건국 설화를 담은 임실군 성수산 왕의숲이 역사와 문화, 생태교육의 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수산 왕의숲 탐험대'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은 나무와 숲이 함께하는 생

태교육을 위한 '성수산 왕의숲 탐험대'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5회 진행된다.

왕의숲 탐험대 활동은 '숲해설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봄바람 느끼며 숲속 산책하기, 신나는 생태 놀이, 열매 악기

놀이, 여름을 알리는 곤충 매미, 숲을 형성하는데 동물들의 역할, 물속 생물 관찰과 물가 식물 알아보기, 물총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준비물, 주요 안내 사항, 여행자보험 가입, 참여 신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s://임실성수산왕의숲국민여가캠핑장.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3-642-6068)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공동육아나눔터 토요일 오후 4시까지 확대 운영

임실군 공동육아나눔터(대표 심민)가 맞벌이 부부 등 이용자들의 돌봄 문화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확대 운영한다.(기존 평일 오전 9시~오

후 6시 운영) 지난해 3월 임실을 행복누리원 2층에 개소한 임실군 공동육아나눔터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부모가 이웃과 함께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

녀를 돌 볼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공간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치유체질의 명소인 순창 쉼랜드가 지역 내 초등학교와 협력해 '건강식 원데이클래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순창 쉼랜드, '건강식 클래스' 호응

인계초와 협력... 순창 농특산물로 아이들 건강 식습관 만들기

치유체질의 명소인 순창 쉼랜드가 지역 내 초등학교와 협력해 '건강식 원데이클래스 프로젝트'를 새롭게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건강식 원데이클래스 프로젝트'는 매월 1회 총 9회에 걸쳐 순창 농특산물을 활용한 면역력 증진, 성장촉진 등 브레인푸드 만들기, 올바른 미각훈련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순창군 인계초등학교는 인기 있는 농촌유학 학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올해에는 6명의 학생이 새로 입학하면서 순창을 대표하는 농촌유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인계면에 위치한 쉼랜드는 다양한 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치유 체험 명소로, 매년 약 2만 명이 방문하는 힐링 핫플레이스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식생활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다양한 식생활 특강과, 건강디저트 실습, 비건 및 저염식 조리방법 및 나트륨 검사 등 매회 다른 디저트 체험과 이론이 결합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실제로, 지난날 29일 쉼랜드는 1회기를 진행했으며 전주대 외식산업학과 전미란 교수를 초청해 미각 중독 영상 시청과 함께 미각체험, 순창 농특산물을 활용한 소고기 채소말이 만들기 체험을 진행해 참여한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쉼랜드와 인계초등학교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상생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군은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참여 대상과 프로그램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형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전북특별법과 특례의 이해' 특강

남원시가 지난 5일, 전북특별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특례 발굴의 필요성을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전북특별법과 특례의 이해'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는 5급 간부 공무원 포함 직원 200여명이 참석, 전북연구원 장세길 책임연구위원이 전북특별법의 비전체계 및 특례 발굴 전략, 특례 제외 대상에 대해 설명하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특례 발굴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전북특별법 1차 개정안에서 제외된 국립공원 활용 특례나 농촌 빈집 활용 특례, 갈로컬 남원캠퍼스와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특례, 인제기관의 지역와 특례(BF건축물인증), 지방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1인2주소 특례 등 시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특례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장기 미등기

과징금 체납 일제 정리

임실군이 지난 4월 1일을 기점으로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관련 장기 미등기 과징금 납부 마감일이 도래했다고 밝혔다.

장기 미등기 과징금은 부동산을 실제 취득 후 3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대상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토지는 전부 해당되며, 등기를 마친 확인서 발급자들에게 한해서 부동산평가액의 20% 범위로 부과했다.

군은 장기 미등기 과징금 관련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자, 개인별 체납내역을 일제히 발송해 왔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유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